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2014.1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슴속 깊은 곳에 온전히
 간직해두면 그것은 씨앗이 되어 싹이 트
 고 일이 펼쳐지다가 마침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법정-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4 / 1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바람 부는 세상에서
처음 마음으로	08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사색의 뜰	15	수 행
책 속의 책	16	가들 수 없는 영혼 - 어느 티베트 라마승의 자서전
내 마음속 풍경	18	그리운 얼굴
천진난만	21	진실한 삶
향기나는 우체통	22	휴양물에서 피는 연꽃이 아름다운 이유
한국불교전설	24	두 그루의 은행나무 (강화 · 전등사)
샌디에고 압탕	28	보름달에 비친 풍경들
참교육 이야기	30	수행자의 올바른 정치참여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34	오늘을 감사하게 하는 따뜻한 영화- 어버트 타임
지혜가 들어있는 책갈피	38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39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6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4년 1월 1일 발행 / 통권 227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6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8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바람 부는 세상에서

글·법 정(法 頂)

지난 밤 이 산골짜기에는 거센 바람이 불어댔다.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도록 바람이 휘몰아쳤다.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니 여기저기 나뭇가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창문을 가렸던 비닐이 갈기갈기 뜯겨 나가 있었다. 그리고 아궁이에 재를 쳐내는 데 쓰는 들통도 개울가에 굴러가 있었다. 대단한 바람이었다.

내일 모레가 우수(雨水)인데 사나운 바람이 부는 걸 보면, 겨울이 봄한테 자리를 내주고 물러갈 날도 머지않았나 보다.

바람은 왜 부는가.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가. 기압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대기의 흐름인 바람은 움직임으로써 살아 있는 기능을 한다. 움직임이 없으면 그건 바람일 수 없다.

움직이는 것이 어디 바람뿐이겠는가. 살아 있는 모든 것은 그 나름으로 움직이고 흐른다.

강물이 흐르고 바다가 출렁이는 것도 살아 있기 때문이다. 묵묵히 서 있는 나무들도 움직이면서 안으로 끊임 없이 수액을 돌게 한다. 해가 뜨고 지는 거나 달이 찻다가 기우는 것도, 해와 달이 살아 있어 그런 작용을 한다.

우주의 호흡과 같은 이런 움직임과 흐름이 없다면 사람 또한 살아갈 수 없다. 이 세상에서 멈추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멈춤과 고정됨은 곧 죽음을 뜻한다.

그러니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움직임과 흐름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것은 변화를 거치면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하나의 극에서

다른 극으로 움직이면서 변화한다. 이런 변화와 움직임을 통해서 새롭고 신선한 삶을 이룰 수 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마치 별집을 쭈셔 놓은 것처럼 시끄럽고 요란하다. 거액의 대출을 둘러싼 비리와 부정이, 우리 사회에서 처음 일어난 일처럼 야단스럽다. 정치권력과 재력이 한데 어울려 빚어 놓은 부정과 비리가 어디 한두 번이던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뭔가 그 전과는 좀 달라질 것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달라지기는 고사하고 갈수록 태산인 그 혼미 앞에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믿었던 도끼에 발을 찍히는 배신감마저 느껴야 한다. 국가기관과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환멸 또한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그 정도가 이제는 극에 달한 듯싶다.

우리는 요 몇 해 사이를 두고 끊임 없이 이런 비리와 부정 앞에 국민적인 긍지와 나라의 체면을 여지없이 짓밟혀 왔다. 그런데 더욱 통탄스러

운 것은 이와 같은 비리와 부정 앞에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기이한 현실이다. 모두가 '그건 너,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

책임질 사람이 없는 사회에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허망하고 위태로운 삶인가.

한때 경제적인 고도성장을 구가 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끼여들겠다고, 세계 일류국가를 이루겠다고 베풀고 장담하던 국가적인 의욕과 국민적인 희망은 1997년 2월 현재 그것이 허구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것은 우리들 자신의 실체를 잘못 인식하고 떠들어댄 정치꾼들의 분홍빛 선전에 지나지 않은 허세였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것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려는 그 과정이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그 어떤 비극적인 상황 아래서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곧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안 하는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요즘 입만 열었다 하면 모두가 하나같이 불경기와 불황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울적하고 어두운 표정들을 짓는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영역이 불경기이고 불황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경제적인 현상이 곧 인간의 전체적인 생활현상과 동일한 것일 수 있을까. 인간생활에는 경제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 이밖에도 경제 외적인 현상이 다양하게 있다.

앞서 살다 간 우리 선인들은 경제 외적인 현상을 통해서 넉넉치 않았던 경제적인 현상을 무난히 극복하면서 사람답게 살 줄을 알았다.

그동안 우리가 생명을 기르고 지탱해 주는 음식을 함부로 버리면서 흥청망청 너무 과분하게 살아 왔던

자취를 이 불경기와 불황의 시점에서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 온 날들이 우리들 분수에 알맞는 삶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하루하루 우리의 살림살이가 내 자신과 이웃에게 복과 덕을 심었는지, 그 복과 덕을 탕진하는 것이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인과관계의 고리다. 오늘의 불경기와 불황은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비리와 부정, 혼란과 혼미는 외부세계에서 주어진 짐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 순간순간 뿌려서 거둔 열매다.

어떤 작용이 있으면 거기 반드시 반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작용은 그것을 지탱하는 반작용이 필요하다. 작용은 양극이고 반작용은 음극이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쇠붙이인 비행기가 공중을 날아가는 것은 거기 공기의 반작용(저항)이 있기 때문이다.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는 공중에 뜰 수 없다. 새들이 공중

을 나는 것도,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을 치는 것도 이런 현상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 혼란과 혼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볼 과제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승은 대답했다.

“어지러운 이런 세상이야말로 진짜 좋은 세상好時節 아닌가?”

무사안일한 태평세월보다는 차라리 난세야말로 그 저항을 통해서 살맛나는 세상이란 말일 것이다.

세계 일류국가를 이루겠다는 허황하

고 촌스러운 꿈을 꾸기 전에, 그 사회 구성원이 상처받지 않고 활기차게 기를 피고 살 수 있도록 염원해야 한다.

사회나 국가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인간, 즉 정부관료와 정치인과 기업인 등 그리고 당신과 내가 지닌 의식이 바꾸지 않고서는 사회적인 변혁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당신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당신의 '속사람'도 불황을 타는가?

- 오두막 편지 중에서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청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목적사업을 위해 2014년에 다양한 문화 활동(미술, 음악, 사진, 인문학, 강연 등)을 기획하는 분과의 교류를 원합니다.

우리 심상과 세상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좋은 프로그램을 이웃과 나누고 싶으시거나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나눠줄 수 있는 분과의 소중한 만남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맑고 향기롭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순수모임으로 나아갈 것을 지향하며,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종교, 종파에 상관없이 손을 맞잡을 것입니다.

〈문의: 중앙 사무국 02.741-4696〉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글 • 덕 운(德耘)

요즈음은 나라 안팎이 많이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필리핀은 '하이엔'이란 태풍이 불어 전쟁의 상흔처럼 국토가 엉망진창이 나있고 국내에도 국정원의 선거개입사건을 둘러싸고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 보기에도 뭔가 정치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윗 글이 120만 건 이상이라고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당선을 결정지을 정도로 많은 글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에서 자행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부정선거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지도자의 열 가지

덕목 중 마지막으로 불상위(不上違)를 설하셨는데 그것은 “훌륭한 지도자는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들의 뜻을 거르지 않고 함께 토론하고 논의해 국가와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에서는 정작 자기들이 저지른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이 국정원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하기만 하면 종북으로 몰아붙이니 참으로 한심한 작태입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참회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도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정치인들의 조급도 양보 없는 흑백논리에 의해 작금의 정치와

사회가 더욱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바깥의 현상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보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고 흔들림 없이 살려는 의지를 굳혀야겠습니다. 그러려면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선(禪)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즈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禪)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禪)이 복잡 미묘한 현대사회를 헤쳐 나가는 주체인 사람들의 마음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깥경계인 허다한 대상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은 바깥경계를 분별하는 허다한 생각의 테두리에 벗어나, 뚜렷한 내면의 체험의 세계로 몰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진실로 '참마음'찾기를 바란다면 대상적 관점에서 벗어

나 초대상적 명상을 통해 자기존재와 존재자 일반을 합일시킴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禪)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이고도 실존적인 탐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선(禪)은 무슨 객관적 구체적 내용으로서 어떤 무엇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 내면의 실존적인 생명과 존재인 것이며 자아완성을 소망하는 '살아있는 자기탐구'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란 자기 자신 밖에서는 결코 발견될 수 없다는 근본적 모순의 각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대상을 향한 모든 분별적 기능은 부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면적으로 일대 전환을 하게 됩니다.

바깥을 향한 일체의 분별을 털어버리고 다만 직관에 의해 해탈의 경지에 뛰어드는 것이며 또한 적막한

침묵 속에서 있으면서 신심탈락(身心脫落)의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려고 애쓰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일체의 개념적인 것을 불식한 끝에 자유자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선의 개념이 잘못 해석되어진 나머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선무술이니 선의술이니, 선영술등 선사상을 왜곡한 사이비 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이비 선들은 잘못하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며 불법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 수용되어진 선사상의 해독에 대해 냉철히 살펴보고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번뇌 즉 보리’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수행이 안 된 무리들이 ‘번뇌 즉 보리’라는 말을 깨닫지 못한 중생심 즉 헤매는 마음이 그냥 그대로 깨달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리만큼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불교의 진리를 오해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불교나 선으로 하여금 수행과 실천이 수반되지 않은 내용 없는 관념불교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 해석되어진 불교 사상을 냉철히 바라보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번뇌 즉 보리’라는 것은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근본자리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보면 번뇌를 일으키는 마음이나 보리(지혜)의 마음이 다 일심(一心)의 작용이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행하지도 않고 생각 생각이 경계에 휘둘리는 번잡한 마음 그대로가 보리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잘못 받아들여 이해하면 수행을 한다 해도 목적지를 동(東)으로 두고서 서쪽으로 자꾸 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진리와는 점점 동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佛法)을 만나기도 어

렵고 불법을 만나더라도 정법(正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말법시대가 되면 불법을 빙자한 사이비 불법이 많아집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피지 않고 보통 눈으로 바라보면 참다운 불법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이자 깨달음의 종교이며 실천을 중요시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불법이 그대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수행은 따로 일상생활은 따로”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흙탕물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등지고는 따로 불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법 속에서 배운 지혜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대로 적용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고요히 앉아 선을 수행함으로써 지혜를 가꿔야 합니다.

지혜는 고요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

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직관력과 통찰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수행, 수행하고 얘기하지만 근원을 깨닫고 나면 수행이라는 개념도 붙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자리에서 살펴보면 어떤 좋은 수사어구도 다 군더더기인 것입니다.

임제 선사께서 어느 날 대중에게 물었습니다.

“제방에서는 수행(修行)해야 할 도(道)가 있고, 증득해야 할 법(法)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도대체 무슨 법(法)을 증득하고 무슨 도(道)를 수행하려 하는가? 그대들은 지금 활동에 어떤 물건이 결여되어 있어서 어느 곳을 보수하려 하는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출가하여 수행하는 것은 도를 닦기 위함입니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깨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임제스님께서도 수행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무주(無住)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는 몸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법은 몸으로 깨달아 증득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가하게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루 24시간 도(道) 아닌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도(道)는 닦음도 없고 증함도 없다는 뜻이니, 이는 마음과 경계를 요달하면 망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무생법인(無生法忍)인 것입니다.

이 무생법인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고, 지금도 있는 것이니 그것은 수도와 좌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수불좌(不修不坐) 즉 닦지 않고 앉지 않아도 망상만 일으키지 않으면 본래 청정한 마음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 도쿠가와 막부시대에

선교에 능한 반케이선사라는 분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다가와 선사께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질이 사나워서 화가 나면 스스로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저의 고약한 성질을 좀 고쳐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의 말을 들은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별 이상한 것을 가지고 있구만. 그러한 것을 지금도 마음속에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더러운 성질을 나에게 한번 보여주게. 그러면 고쳐주겠네.”

“지금 그것을 제가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성질이라는 것이 지금 있거나 한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언제 그 성질이 나타나는지 말해주게나.”

“글쎄요. 그것이 마음 속 어느 구석에 있을까요. 그 보다도 마음 자체를

모르겠으니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년이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잊지 못하자 선사가 다그쳤습니다.

“여보게,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 성질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는가? 안다면 그것을 꺼내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네를 위해 편안케 해주겠네.”

그 청년은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혀 더 이상 어찌할 말을 찾지 못하고서 겨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음이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니 그 성질이 어디에 있는지 더욱 모르겠습니다.”

청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선사가 말했습니다.

“자네의 성질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또한 만질 수도 없으니 이제 그대의 불같은 성질을 모두 소멸되었네.”

이 문답은 달마대사와 혜가대사의 문답을 상기시킵니다.

이 말은 망상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대로그가 본원청정심인데 더 이상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느낀 것이 있어 절을 했다고 합니다.

나옹 스님께서서는 조작이 없는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읊었습니다.

요요명명(了了明明) 불복장(佛覆藏)이고
청자청혜(靑者靑分) 장자장(長者長)이라.
적적무의(的的無疑) 번일척(翻一擲)이면
맥흔점액(暮忻點額) 자환향(自還鄉)이라.

분명하고 밝고 밝아 감출 곳이 없나니

푸른 것은 푸르고 긴 것은 길뿐이다.
확신하고 의심 없이 한번 몸을 뒤치면

단박에 머리 끄덕이며 고향으로 돌아가리.

진리의 태양이 밝고 밝게 드러나니
감출 것이 없습니다. 푸른 것은 푸르고 붉은 것은 붉을 뿐입니다. 있는 그

수행



글 문애란(광주모임 봉사자)

대로 명명백백한 것이지 넘치거나 모자란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 또 수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수행은 조작이 아닙니다.

수행하려고 마음을 한 생각 일으킨다면 망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본래 있는 자성청정심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더 이상 밖으로 쫓아 헤매지 말고 허다한 망상을 쉬고 안으로 얻는 바가 없고 밖으로 구하는 바가 없이 안팎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이 열반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초하루입니다.

지나간 한 달을 뒤돌아보고 다시 한 번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소모하는 일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진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날 되시기 바랍니다.

- 불기2557년 11월 초하루 법문
(2013년 12월 3일)

(사)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대전, 충청지역에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진취적으로 펼칠 역량 있는 대전 본부장과 실무를 충실히 이행하실 분의 자발적인 지원과 추천을 받습니다. 뜻이 있는 분께서는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세요

1. 자격:
 - 정관 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홈페이지 정관 참조)
 - 지부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자
2. 신청기간: 2014년 1월 20일까지
3. 신청방법: 별도 문의, 상담
4. 선정자 결정: 접수 후 개별 통보
5. 문의처: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사무국 / ☎ 02-741-4696

맑고 향기롭게 문을 여는 순간
사찰의 일주문을 통과하듯
몸과 마음 바로 하여 수행이 시작되네

일주일에 한번은 내 수행을 점검하는 날
지금까지 몸에 밴 업습으로 인해
순간순간 잘못된 습관 바로 나오네

대상에 분별이 생기고
성냄, 탐욕, 집착, 어리석음으로
신통치 않은 공덕마저 모두 무너뜨리네

나를 비우고 나를 관찰하면서
이곳 수행처에 오신 모든 부처님들을
찬탄, 공경하고 지극정성 공양하리

공양 중의 최고의 공양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그리하여 없는 공덕이나마
오늘 하루 무량한 공덕 쌓으리라

이곳이 바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무량한 복밭
더 없이 좋은 수행처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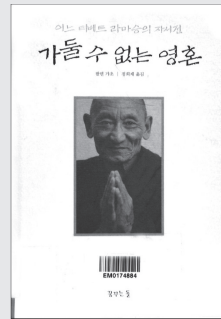
가들 수 없는 영혼

- 어느 티베트 라마승의 자서전

새봄 내 책상 위에는 두 권의 책이 놓여 있다. 프랭크 스마이드의 <신의 영혼>과 팔덴 가초의 <가들 수 없는 영혼>이다.

팔덴 가초는 티베트 라마승인데 중국이 티베트를 침략한 후 30여 년 동안 그가 겪은 고난의 기록이다. 그는 어떤 고난에도 스승과 영혼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고 강인한 정신력을 지켰다. 그에게는 감옥이 곧 사원이고 족쇄와 수갑이 경전이였다.

<아름다운 마무리 중에서>



국내 처음으로 티베트의 아픔과 현실을 전하는 책

대다수 사람들은 티베트를 달라이 라마나 명상 혹은 깨달음이란 단어와 함께 떠올린다. 그러나 중국의 통치하에 있는 티베트의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한 후 티베트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었고, 6천여 개의 사원이 파괴당했다. 15만 명이상의 승려들이 강제로 환속당하거

나 감옥이나 노동 수용소로 끌려갔다. 한때 숨어 있는 이상향으로 불리던 티베트는 그렇게 파괴되었다. 유서 깊은 불교 문명과 전통은 모두 무너졌고, 대부분 유목민이던 티베트 사람들을 동원해 지질에 맞지 않은 농사를 강요한 결과 굶주림과 가난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이 점령하고 난 뒤 티베트의 모습이다. 티베트에서 탈출해 독립을 외친 어느 라마승의 자서전<가들 수

없는 영혼>은 국내에 처음으로 티베트인의 목소리로 티베트의 아픔과 현실을 전하고 있다.

동정심과 자비심을 잃지 않은 사실 증언

“내가 감옥에서 보낸 세월이 벌써 30년이네. 그 세월동안 배운 게 있다면 절대로 자비를 구걸하지 말라는 거라네. 결코 자비를 얻지도 못할 뿐더러 정신의 품위만 떨어지고 말지. 잊지 말게. 우리는 티베트 사람이야.”

티베트 최장기수인 지은이는 스승을 인도 스파이로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물여덟에 중국 정부에 체포되어 예수의 나이까지 31년간 감옥에 갇힌다. 그리고 곧 티베트를 탈출해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북부의 다람살라로 건너가 달라이

라마를 친견하고 티베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을 전한다.

이 책은 승려가 되기 위해 처음 출가할 때의 평화로운 티베트의 모습에서부터 감옥에서 보고 겪었던 모든 고통과 탈출까지의 삶을 담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정심과 자비를 잃지 않고 사실을 증언해 고통을 주는 자 고통을 받는 자 모두를 감싸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그리하여 중국인 대 티베트인이라는 대립구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폭력과 증오의 유혹에 휩싸이기 쉬운 인간성 자체를 성찰하게 만든다.

- 2003년 출간된 이 책은 출판사의 사정으로 인해 절판이 된 상태였으나, 책을 국내에 소개하고 번역한 정희재 작가가 재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 홀로 있으면서도 책과 글로 대중과 함께 있으셨던 법정스님! 스님의 구도와 진리의 길에 함께해 온 책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법정스님의 책 속에서 스님이 읽으셨던 책을 찾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 편집자 주

그리운 얼굴

글 • 이경숙

이경숙님은 2006년 수필과 비평에 '오소리 7번지로 등단하여 현재 수필가로, 자유기고가로 활동하며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독서와 글쓰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꿈돌'이란 필명으로 운영 중인 그의 Daum 블로그는 630만 명 이상이 다녀갔으며, 일상에서 자녀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글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워메, 내 새끼들 왔는가? 어서 오소.”
등이 기억자로 곱으신 할머니는
마치 몇 년 만에 만난 것처럼 우리
를 반기신다.

“이리 와서 밥부터 먹어라 잉.”
할머니가 우리를 밥솥으로 이끄신
다. 늘 그랬다. 백적지근한 환대 끝
에 할머니는 꼭 밥을 권하셨다. 전기
밥솥 옆으로 멀뚱히 서 있던 밥상 위
엔 찌꺼기가 잔뜩 들러붙은 찬기들
이 오종중 앉아있다.
“어여 앉거라.”
빨간 전기밥솥이 화들짝 입을 연다.

화라락, 하얀 김이 물려나오고 팔물
든 밥이 불그레하니 형체를 드러낸
다. 꺼멥게 절은 나무주걱이 밥 위에
누워 있고, 밥물이 더덕더덕 더께져
있는 본체와 솔뚜껑이, 침침한 알전
구 아래에서도 적나라하다.

“제가 할게요.”
“아니여, 먼 길 오느라 힘들텐디
어여 앉어.”
손자며느리를 제친 할머니는 별별
떨리는 손으로 그릇에 한가득 밥을
퍼 담으신다. 그릇 위로 밥이 한 공
기쯤은 더 올라가 있다.

“많이 먹어라 잉.”

딸들의 얼굴은 미리부터 ‘대략난감’
이다. 그 아이들의 표정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 모르지 않지만 질끈 눈을
감고 속으로 응답한다.

“애들아, 증조할머니도 한 때는 맑
은 물 툇툇 흘러던 아낙이었다. 손
끝이 여물기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지. 눈이 어두워지신 거야. 그
런 눈으로 밥을 하다 보니 물량을 맞
추지 못해 밥이 질척거리거나 푸실
거리고, 그릇에 때가 끼어 있는지 뭐
가 묻어 있는 지 분간을 못하시는 거
란다.”

“할머니, 저희는 조금만 주세요.”
“엿다.”

할머니는 증손녀의 말은 귓등으로
흘리시고 고봉으로 담은 밥을 건네
신다. 나는 정말 맛있는 것처럼 할머
니가 퍼주시는 밥을 열심히 먹는다.
“아가, 더 먹어라.”
오지게 먹는 손자며느리가 예뻐

보여서인지, 허기져서 잘 먹는 거
라고 오해를 하시는 건지 곁을 지키
던 할머니, 빈 그릇을 빼앗듯 채 가
신다.

“아니예요, 할머니. 많이 먹었어요.”
허겁지겁 손사래를 쳐보지만 그만
먹고 싶은 내 의향은 또 묵살된다. 배
가 터질 것 같다. 딸들 역시 아무것도
못 본 척 맛있게 먹는다. 무언의 수궁
속에 우린 밥이 아니라 할머니의 사
랑을 배불리 먹었다.

시할머니는 염소를 키우겠다는 아
들을 따라 분가를 하셨다. 목장은 산
속 외진 곳에 있었고 공직에 몸담고
계시던 시아버님이 출근하시면 누
군가 염소들을 지켜야 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할머니는 염소지기로 차
출(?)되신 것이다. 아버님의 연세가
예순 여섯, 할머니는 여든 다섯 때였
다.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지 않은 아
주버님과 따로 사셨다. 명절 때나 무
슨 일이 있을 때 우린 본가가 아닌 할
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갔다. 우리들

이 간다고 하면 할머니의 귀는 종일 문밖을 서성였다.

“오메, 내 새끼들 왔는가?”

합죽한 할머니 얼굴에 함박꽃이 피어난다. 들뜬 환대 끝은 꼭 밥이었다.

“아가, 밥 먹어라.”

“아가, 더 먹어라.”

아가, 아가, 아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지 8년, 문득 문득 할머니가 보고 싶다. 어쩌면 할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상이 더 그리운 건지도 모른다. 너무 질어 밥알이 으깨졌거나 설익어 푸석거리던 밥, 거칠고 맛없던 반찬, 꼬질꼬질하던 그 밥상이.....

향기가 묻어있는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 그리고 길상사 신도님 더 나아가 여러 독자님의 따뜻한 마음과 향기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터에서 생겨나는 소소한 이야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가슴이 뭉클한 감동의 이야기, 자연을 아끼면서 생태적인 삶을 실천하는 나만의 비결이나 수행과 수행 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느꼈던 내 마음 안의 깊은 충만함이나 내면의 깊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2014년에는 더욱더 독자 참여 지면을 늘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원고를 보내주실 때는 본인의 소개(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세요. 원고 채택 시에는 귀한 책 한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보낼 곳

주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길상사내 (사)맑고 향기롭게

이메일 : clean94@daum.net (첨부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진실한 삶

맑은 만남(淸逢)



남들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든
진실하게 살아라

What you would seem to be be
Real.

흙탕물에서 피는 연꽃이 아름다운 이유

글 • 김정진

서울구치소 영선무 관통조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구속된 지는 어느새 7달이 넘었고 기결수가 되어 일을 시작하지도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영선무의 총인원은 30명 내외. 그 중에서 '관통'조는 4명. 영선무내의 특공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선무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못이나 나사 하나를 박는 일부터 시작해서 각종 수리, 장판, 도배, 페인트칠, 미장 등의 일은 물론 '관통' 그러니까 막힌 화장실을 뚫어 주는 일까지 합니다.

저희가 끌고 다니는 마차의 무게만 약 80kg. 축소된 철물점이라고 할 정

도로 온갖 물건과 공구를 다 들고 다닙니다.

영선무 내에서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다양한 일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온갖 일을 다 하는 저희입니다만 저희의 주특기는 저희 조 이름 그대로 '관통'입니다.

서울구치소 내의 미결수, 기결수를 수용하는 거실만 해도 약 540개, 이 말은 곧 변기가 약 540개라는 것, 여기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까지 모두 합치면 대략 700개 이상의 변기를 관리하는 거죠.

하루에 보통 2~3개. 많은 날은 열 개 이상의 변기가 막히게 됩니다. 그

걸 모두 해결하는 게 저희 '관통'조의 일입니다.

고무장갑과 철사 꼬챙이 3개, 뚫어 뺨 그리고 공기 압축기 이거면 '관통' 일을 모두 볼 수 있는 거죠. 일이 많은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막힌 변기만 뚫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심하다 싶은 날엔 밥 먹기가 힘들 정도로 지저분하고 그럴 때는 후회도 돼요. 괜한 일을 하는 것 아닌 거! 좀 더 쉬운 일(예를 들면 이발 같은 일)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합니다.

한편으로 지금 하는 이 일이야말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딱 알맞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죠.

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 내에서 가장 지저분한 일을 하는 처지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의 배설물로 막힌 화장실을 뚫어서 그들을 편하게 해주는 일, 심한 경우엔 똥물을 뒤집어쓰면서까지 이 일을 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낮추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흙탕물에서 피는 연꽃이 아름다운 이유를요.

가장 낮은 곳, 가장 지저분한 곳이 마음을 닦는 데는 최고의 환경임을 깨닫습니다.

열 달 남짓한 남은 시간, 제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면서 말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가장 지저분한 곳에서 맑은 마음을 닦고, 지저분한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바꿔갈 것입니다.

- 꾸준히 맑고 향기롭게 보고 있습니다. 작은 책자를 통해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편집부의 변함없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맑고 향기롭게 모든 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두 그루의 은행나무 <강화 · 천등사>

글 • 최정희(불교 언론인)

『스님-』
『……』
『노스님-』
동승은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며 목청을 높였다. 노스님은 마치 천년 고목인 양 눈을 감은 채 말이 없다.
하늘을 덮은 두 그루 은행나무가 서 있는 일주문 밖에 노스님은 아침부터 그렇게 앉아 있었다.
『노스님!』
사미승은 염주가 들린 노스님의 팔을 잡아 흔들었다.
『스님, 관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또 무슨 일로?』
『상감께 진상할 은행을 작년의 두 배인 20가마를 내라는 전갈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산까

치 울음소리가 고요한 가을 산사의 적막을 깬다. 노스님은 육환장을 짊고 일어나 동승과 함께 일주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선재야, 너 벼슬아치 성화가 무서우냐?』
『아노, 다만 해마다 은행은 10가마 정도밖에 열리지 않는데…』
『그래도 바쳐야지.』
『소승은 벼슬아치들이 부처님 도량에 와서 행패를 부릴 때면 그들이 측은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미워집니다. 스님, 어쩌하면 남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선재야.』
『네, 스님.』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바라봤다. 노승과 동승은 마치 자신들의 전생과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아끼기 때문이니라. 자기를 아끼는 마음은 남을 미워하기도 사랑하기도 한단다. 이는 모두 인연따라 일어나는 일이니 나의 업(業)연으로 인해 남을 미워함은 곧 나를 미워함과 같으니라. 출가한 사문은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한다. 오늘날 조정은 물론 사대 부까지도 불법을 욕되게 하나 그렇다고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된다. 부처님 법은 결코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니 자비로써 대해야 하느니라.』
동승은 노스님 앞에 머리 숙여 합장했다.

불교 탄압이 심했던 조선조 시절, 나라에 공물을 바치고 사역을 해야 했던 스님들은 깊은 산으로 들어가 은거했다. 따라서 많은 절이 폐사 또는 퇴락해 갔다. 이럴 즈음 강화도 천등사에도 벼슬아치와 토호들의 토색질이 심했다. 젊은 스님들은 강화성을 쌓는 데 사역 나갔고 나이든 스님들은 절에서 종이를 만들어 바쳐야

했다. 스님들은 이런 어려움을 수행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10가마 이상은 열리지 않는 은행을 20가마나 공물로 바치라니 어이가 없을 수밖에. 종이를 만들던 한 스님이 동승과 함께 다가오는 노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스무 가마의 은행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글쎄 어쩌하면 좋을꼬?』
『상소? 소용없는 노릇이야.』
『그럼 탁발을 해서 바쳐야 할까요?』
『그것도 안 될 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좋은 은행은 다 먹고 탁발한 은행을 진상했다고 트집잡을 것이다.』

노스님 주변으로 경내 대중들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어여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여라. 불법의 길은 각자가 하는 일 속에 있으니 소임에 충실하거라.』

노스님은 다시 동승에게 일렀다.
『선재야, 너는 곧 백련사에 가서 추

송 스님을 모셔오너라.』

말을 마친 노스님은 육환장을 끌면서 선실로 들어갔다.

『그렇지! 그 스님이면 될 거야. 바람과 비를 몰아오는 신통력을 지녔으니 은행 20가마 열리게 하기란 어렵지 않을 거야.』

당겨미가 질 무렵, 추송 스님은 동승을 앞세우고 전등사에 도착했다.

추송 스님은 곧장 주지실로 들어갔다. 수인사를 마친 두 스님은 한동안 무엇인가 의논했다.

이윽고 노스님이 동승을 불렀다.

『선재야, 모든 대중을 일주문 밖 은행나무 아래로 모이도록 일러라. 그리고 별좌 스님은 은행나무 아래 제단을 마련하고 3일 기도 올릴 준비를 하도록 해라.』

『스님, 은행을 많이 열리게 하는 기도인가요?』

『그렇다. 어서 전하기나 해라.』

노스님은 동승을 재촉했다. 이른날 아침부터 은행을 더 열리게 하는 3일 기도가 시작되었다. 이 소문은 곧 인근 마을에서 마을로 알려져 강

화섬 전역에 퍼졌다. 구경꾼이 모여 들기 시작했고 구경 나온 아낙들도 추송 스님을 따라 절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올리는 재는 그 열기가 점점 고조되어 갔다. 당대의 도승 추송 스님이 친히 3일 기도를 올린다 하니 강화섬 벼슬아치들도 호기심을 갖고 기도장에 나타났다.

『노인, 당신이 주지요?』

『그렇소.』

포졸 서너 명과 함께 나온 군관이 노스님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 재는 왜 올리는 거요? 나라에 공물을 바치기 싫어서 상감마마와 백성을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오?』

『어찌 그런 무엄한 말을... 우리는 상감마마에게 진상할 은행이 많이 열리기를 기원하고 있을 뿐이오.』

『하하하, 은행이 어디 사람 맘대로 더 열리고 덜 열릴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어리석은 소리로군.』

군관은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비웃었다.

그때였다. 웃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군관은 얼굴을 감싸고 땅 위에 나뭇그늘에 걸렸다. 새파랗게 질린 군관이 정신 차리고 일어섰을 때 군관의 한쪽 눈은 부은 채 멀어 있었다. 이 소문을 들은 구경꾼은 자꾸만 늘어났다. 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목탁과 바라소리, 그리고 염불소리가 일시에 멎었다. 신비로운 적막이 천지를 뒤덮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윽고 추송선사의 낭랑한 음성이 적막을 깨뜨렸다.

『... 오늘 남섬부주 해동 조선국 강화도 전등사에서 3일 기도를 지성 봉행하여 마치는 대중들은 두 그루 은행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게 해주기를 축원하나다. 백년이고 천년이고...』

모였던 대중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선사의 축원이 끝나자마자 바람이 일고 뇌성이 치더니 때 아닌 먹구름이 일면서 우박과 비가 퍼부었다. 그 위로 은행 열매가 우수수 떨어졌고, 육환장을 짚고 선 노승과 동승이 마주서서 크게 웃고 있었다.

이날 이후 노승과 동승은 물론 추송선사도 보이지 않았으며 관가의 탄압도 없어졌다.

또한 두 그루의 은행나무는 오늘날까지도 열매를 맺지 않는데 사람들은 이 은행나무 하나를 노승나무, 다른 하나를 동승나무라고 부른다.

최정희님(現 현대불교신문사 편집이사)은 1975년 불교신문 공채 기자로 불교 언론에 몸담은 이후 불교문화 우수성을 기획 발굴 보도하며 40년 가까이 불교 언론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근간이 불교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불교는 어떤 것인지 불교전설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자 작가의 허락을 받아 연재합니다.

보름달에 비친 풍경들

글 • 최미자(재미수필가)

음력 정월에는 민속명절인 설날과 대보름이 있다. 12월 마지막 밤 눈썹이 희어지지 않으려고 우린 날을 지새웠다. 깜박 잠이 들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밀가루로 눈썹을 하얗게 칠해 놓았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밤늦도록 명절음식을 장만했다. 새해 아침을 맞으며 우린 설빔을 차려 입었다.

하얀 떡에 노란 계란 지단을 얹고 김 가루를 뿌린 조상들이 창작해 놓은 떡국은 보기만 해도 아름답다. 배부르게 먹고 친척 어른들을 찾아가 세배 드렸다. 받은 뽕뽕한 세뱃돈을 주머니에서 꺼내 세어보던 일은 어린 시절의 즐거운 추억이다.

그믐날 어둠 속 창밖에서 “복조리 사려”라고 외치던 소리에 나가 우린

복조리를 샀다. 연한 대나무로 엮어 만든 주먹 모양의 복조리는 쌀을 씻을 때 돌을 골라내는 도구였다. 당시 쌀에는 돌이 많아서 복조리로 일어서 밥을 지었다. 배고픈 시절이었기에 새해엔 예쁜 복조리가 넉넉한 쌀을 날라다 줄 것이라며 기대했다.

고대의 농경사회에서는 해와 달을 중요시했다. 음양의 동양사상에서 해는 남성으로 달은 여성으로 인격화하며 대보름은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다. 지혜로운 선조들은 음식이 풍부하지 않던 대보름날이면 부스러미 생기지 말라며 호두와 땅콩 같은 부럼을 깨물었다.

여름이 오면 얼마나 더위가 싫었던지 내 더위 좀 제발 가져가라며 더위를 파는 이기적인 풍습도 있었다.

보름날 아침이면 친구의 부름에 대답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명심을 시켰는데도 나는 깜박 잊어버리고 멍청하게 대답하곤 했다. 어머니가 정성스레 만들어 조상께 기도하고 먹었던 별미의 오곡찰밥. 이웃들이 보내 온 약밥. 저녁에는 쥐불놀이를 구경하러 논두렁으로 갔다. 이듬해의 풍작을 위해 골칫거리였던 쥐와 흙의 해충들을 죽이려고 논밭의 마른 잡초를 태우는 풍습이었다.

남자 아이들은 쥐불 깡통의 철사 끈을 돌리며 누구의 불빛이 더 멋진가를 경쟁했다. 컵보다는 큰 깡통에 여러 개의 구멍을 내고 나무 부스러기로 불을 피웠다. 환한 달빛아래 놀던 동네아이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 “쥐불이야 쥐불”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원을 그리던 환상적인 불빛 속의 들녘 풍경. 어릴 적 나는 오빠와 사내 동생의 틈바구니에서 덜렁대며 섬 머슴애처럼 자랐다. 보름날 저녁 동생과 오빠에게 불쏘시개 나무 부스러기를 주워준다며 땅만 보고 걷다가 그만 오빠의 쥐불 깡통에

‘뺱’하고 맞아버렸다.

머리에서는 별건 피가 흘러내렸다. 병원에서 간단히 꿰뚫 후 방에 누웠지만 오빠는 꿇어 앉아 벌을 받았다. 늦은 밤까지 벌 받는 오라비가 안쓰러워 나는 상처가 아리는 것도 잊어야 했다. 다행히 작은 흉터만을 남겼지만 보름날의 추억은 재미있다. 짚단을 쌓아 놓은 달집이 훑훑 타는 불길을 보며 새해 농사의 풍요로움과 각자의 소원을 빌었다. 날마다 뺱과리 소리가 하늘을 울렸고 잡귀를 쫓는다며 지신을 밟는 농악꾼들은 동네를 돌았다. 부모님이 사주던 새 신발과 옷을 머리맡에 두고 기다리던 새해아침은 가슴 설레던 희망이었다.

생존 경쟁의 치열한 도시로 사람들이 떠나버린 지금. 온갖 맛있는 걸 먹고 어려움도 모르고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요즘 아이들은 어린 시절의 희망과 꿈이 무엇일까. 아이들이 원하면 모두 들어주는 현대판 부모들도 깊이 고려해야 할 교육적 문제인 것 같다.

수행자의 올바른 정치참여

글 •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나라 어느 한 구석도 조용한 곳이 없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와 불교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던 원불교까지 대선무효와 박근혜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때문이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 나른 트윗글이 무려 2천 91만 건에 이르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그리고 안전행정부까지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종교계가 나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광주지역의 개

신교 · 천주교 · 불교 · 원불교 · 천도교 등 5대 종단이 동참하고 서울 조계사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들이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처벌과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종교단체의 시국선언과 대통령의 사과요구를 두고 보수적인 종교지도자들은 “북한을 옹호 하는 듯한 시국미사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망령된 행위로 엄히 규탄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종교인들의 정치참여가 무조건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일까? 혹자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거론하고, 혹자는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일에 관여라

배뇌라’ 하느냐며 사제복을 뒤집어 쓴 중북세력’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어떤 이들은 “정의 구현이라는 이름 아래 종교를 이용한 간첩활동”이니 “신부 탈을 쓴 좌익 쓰레기” 운운하며 노골적인 비방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개신교의 구약성서 사무엘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사람은 부자였고 한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많았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품삯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들과 함께 키우며 한밭 그릇에서 같이 먹이고 잘 때는 친딸이나 다를 바 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의 새끼 양을 빼앗아 대접을 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듣고 있던 다윗 왕이 쾌심한 생각이 들어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 둘 수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네 배로 갚게 하리라.” 듣고 있던 나단이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한 부자란 바로 다윗 왕이다.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밋세바를 범하여 임신하자 전쟁터에 나가있는 밋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 밋세바와 동침하게 하여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자 우리아를 사지로 밀어 넣고 끝내 죽게 만든다.

다윗의 범죄를, 그것도 왕의 앞에서 새끼 양을 빼앗은 파렴치한으로 비유해 지적한 나단의 용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나단이라는 사람은 왜 절대 권력자인 군주 앞에서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했을까?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폭력이다. 폭력을 보고 침묵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사회는 정의가 무너진 사회다.

신라 진평왕 때 원광법사는 세속 5계를, 고려 때 당태종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일어 선 이는 승병이다. 고려 숙종 때 승려들로 조직된 향마군이며 몽골 장수 살리타이를 물리친 이는 다름 아닌 승병출신의 김윤휴다. 승병장 서산대사 휴정과 사명대사 유정이 그렇고 기허대사 영규스님 또한 나라의 위기에 처했을 때 경전을 덮고 일어나서 지 않았는가?

속세를 떠나 수도를 하는 승려나 내세를 준비하는 기독교 사제들도 똑같은 국적을 가진 국민이다. 외적의 침략으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나 독재 권력의 횡포로 민초들이 숨막혀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모른 채 하지 않았던 자랑스러운 과거를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주권회복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에 대한 저항은 시민단체와 학계, 종교계

에 이어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등 세계 곳곳에서 책임자 사퇴를 촉구하는 거리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정원과 안전행정부 그리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까지 나서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있는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과거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종교인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나라를 지켰다. 중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권이 유린되고 있는데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종교는 종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일까?

고려대 학생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대자보 하나가 ‘안녕하십니까’ 신드롬이 되어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다. 대자보 신드롬이 대학에서 중고등학교로,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까지 번져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자보 현상은 우리사회가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이념간의

갈등, 학벌사회의 모순 등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정의가 실종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 누가 행복할까? 안녕하지 못한 시민, 안녕하지 못한 학생들, 안녕하지 못한 학부모와 직장인들…….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데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는 깊은 수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거나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일은 종교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권력이 남용되면 피해는 결국 병든 자와 소외된 자, 힘없고 가난한 자의 몫이다. 다윗과 같은 폭력을 저지르는 독재 권력이 나타난다면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을까?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가해자를 돕는 것이라고 했다. 종교인들이 바라는 이상세계는 힘 있는 자나 없는 자, 가난한 자나 부자, 남자나 여자, 어린이나

어른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다.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 불의가 발붙일 수 없는 세상……. 그런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게 종교가 지향하는 세계요, 중생들이 원하는 세상이 아닌가?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고 종교는 가르치고 있다. 이웃이 핍박당하고 있는데, 배고파하는데, 편하게 잠잘 곳도 없는데, 불의한 권력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 입으로는 사랑과 자비를 말하면서 모른 채 하는 종교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오실 세계는 우주공간 밖의 어떤 세계가 아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사바세계다.

‘경제 정의,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요,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희망이다. 이러한 꿈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바란다.

오늘을 감사하게 하는 따뜻한 영화, 어바웃 타임

글 • 서정민갑(대중음악의전가)

얼마 전 참 괜찮은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국 영화였는데요. 오늘은 이 영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영화는 많고, 좋은 영화도 많지만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영화는 많지 않습니다. 누구든 볼 수 있는 영화는 많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영화가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웃음과 적당한 드라마와 적당한 슬픔을 버무려놓느라 뻘한 영화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심 있게 밀고 가기보다는 대중들이 좋아할만한 코드를 버무려 놓는 영화는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영화가 되어 버리곤 합니다.

요즘에는 영화의 시작을 보면 끝

을 알 수 있는 영화가 많은데 참 게으르고 안일한 방식입니다. 반면 맞춤형 기획으로 눈물을 쏟아내지만 영화가 끝나면 아무 것도 남지 않는 영화, 웃고 나오지만 웃음을 주는 코드 자체가 불편한 영화가 자주 흥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영화가 흥행하는 현실은 공허합니다. 맞춤형 기획상품 같은 영화들이 흥행하는 사회에서는 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영화, 널리 사랑받는 영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바웃 타임>이 빛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영화는 누가 봐도 좋은 영화이면서 재미와 감동까지 주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어바웃타임

<어바웃 타임>은 <노팅 힐>과 <러브 액츄얼리>라는 대표적인 로맨틱 코메디 영화를 만들어낸 영국의 영화제작사 워킹 타이틀과 감독 리차드 커티스가 다시 손 잡고 만든 작품입니다. 영화의 전반부는 주인공 팀이 메리와 펼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영화의 후반부는 가족과 인생 이야기로 확대됩니다.

사랑과 가족, 인생 이야기를 함께 펼쳐놓기 위해 영화가 선택한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팀의 가문 남자들만이 가진 비밀 능력이라는 설정입니다. 팀은 어른이 된 날 아버지에게 놀라운 비밀을 듣게 됩니다. 가문의 남자들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입니다. 과거의 모든 순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고 자신이 참여한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형적인 루저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변변히 연애도 못해보고 여자 친구도 없는 팀은 가문이 준 능력을 자신의 연애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자 친구를 만들기 위해 과거 회귀 능력을 사용하지만 여자 친구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자 친구를 만들기 위해 런던으로 오기까지만 여자를 만날 기회도 없고, 과거 회귀 능력을 사용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불 꺼진 카페에서 팀은 무척이나 매력적인 여자 주인공 메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와 멋진 사랑을 시작하면 좋을 텐데 영화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팀의 주변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팀이 그 사고를 막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느라 메리를 만나서 미래의 시간을 놓쳐버리기 때문

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연결되어 있고, 과거의 한 순간을 바꾸게 되면 미래의 시간도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팀과 메리는 사랑에 빠지게 되고 행복한 나날을 즐기게 됩니다. 처음 팀과 메리가 얼굴을 마주 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주인공 메리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 메리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눈부신 미녀가 아니라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메리가 등장하는 순간, 그리고 메리와 팀이 우여곡절 끝에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 메리와 팀이 결혼을 약속하는 순간, 메리와 팀이 결혼하는 순간은 로맨틱 코메디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워킹 타이틀과 리처드 커티스의 진가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어딘지 모르게 부족해 보이는 남자 주인공 팀이 멋진 여자주인공 메리와 사랑을 이뤄가는 유쾌하고 즐거운 씬들은 관객들을 빙그레 웃게 만듭니다. 로맨틱 코메디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영화의 전반부에서

거의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를 중간쯤까지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의아해집니다. 그 때부터 영화는 비로소 연애의 시간만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시간과 가족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때부터는 여동생 킷캣과 아버지가 부각됩니다. 어린 시절 귀엽기만 했던 킷캣은 어른이 되면서 연애 때문에 자존감을 잃고 방황하고, 나이 든 아버지는 결국 생을 마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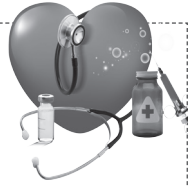
이제는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팀은 어떤 문제는 해결하지만 어떤 문제는 끝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팀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것을 얻으면 어떤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화의 후반부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들은 팀과 아버지의 교감입니다. 팀에게 가문 남자들의 비밀 능력을 알려준 아버지는 다정하고 사려 깊은 아버지의 모습

을 보여줍니다. 왜 그가 나이 50에 정년퇴직을 하고 가족들과 산책하고, 팀과 탁구나 치면서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장면들은 가족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일러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들이기도 합니다. 전반부의 로맨스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후반부의 가족에는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선택만이 최선이었다고 말하기 어렵고, 인생에서 중요한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영화에서 매력적인 것은 영화의 설정과 줄거리만이 아닙니다. 조금은 어리버리해보이는 남자주인공 팀은 영화가 진행될수록 근사한 남자로 보일만큼 좋은 연기를 선보입니다. 등장부터 사랑스러운 여자주인공 메리는 끝까지 상큼한 매력을 잃지 않습니다. <러브 액츄얼리>에서도 좋은 연기를 선보였던 아버지 역의 빌 나이는 영화의 중심을 잡는

안정감 있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다른 연기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또 다른 조연은 음악입니다. 닉 레어드-클로우즈가 맡은 영화 음악에서는 더 큐어와 닉 드레이크, 아르보 페르트 등의 좋은 곡들이 영화의 곳곳에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영화도 좋지만 음악 덕분에 영화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OST를 찾아서 듣고 싶어질 만큼 음악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 영화의 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팀과 메리의 사랑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시간 여행이라는 장치가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확인하는 주제가 새로운 인식을 이끌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보는 내내 빙그레 웃음 짓게 하고 곁에 있는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속 쓰릴 땐 우유를 마시는 것이 정말 좋을까?

우유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우유가 알카리성을 띠기 때문에 위산을 중화하고, 위 점막을 보호해 위궤양과 위암을 억제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현상 일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우유는 위궤양증세를 악화시킨다. 특히 취침 전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마시면 잠시 속은 편안해지나 인체의 반동 작용으로 위장 내에서 곧바로 더욱 많은 위산을 분비시켜 오히려 속을 더 쓰리게 할 수 있는 잘못된 건강상식이다. 속쓰림 증상이 심할 경우 위암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으므로 의사를 찾아 내시경검사를 받아야함은 물론 위궤양일 경우 약물복용 등 근본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상생활에서 흔한 상처들: 베이고, 긁히고, 찔린 상처들

조금 베었을 때에는 흐르는 물에 상처 부위를 씻고 깨끗한 거즈로 닦은 후 소독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인다. 만약 상처가 크고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면 지혈을 하면서 빨리 병원에 가야한다.

단, 이때에는 상처 부위가 오염된 것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처를 만지거나 벌리면 절대 안 된다. 이는 세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뾰족한 물건에 찔렸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피부에 이물질이 박혀 있지 않으면 흐르는 물에 상처 부위를 씻고 소독하며, 작은 상처라도 파상풍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게 좋다.

또, 이물질이 깊이 박혀 있다면 함부로 빼내지 말고 박혀 있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게 조심하면 병원에 가야 한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자료 2014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직접 출력 및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 확인 및 기부금 영수증 출력 가능

2013년 한 해 동안 정성껏 보내주신 후원금과 물품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모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보내주신 후원금 및 물품에 대한 현황을 집계하여 국세청에 보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빙 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모임에 등록된 후원회원(가족)님의 개인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후원자의 성함과 출금계좌 예금주명이 다른 경우 기부금 영수증은 본모임에 등록된 후원자의 명의로 발급됩니다.

또한 중앙모임으로 후원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도 후원내역, 기부금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며,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중앙모임 - 참여, 후원 - 나의 후원내역,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받기가 어려운 분께서는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또한 이사를 가시거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께서도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세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www.yesone.go.kr

◆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기부금 영수증 출력 서비스 :

www.clean94.or.kr - 참여,후원 - 나의 후원내역 -기부금 영수증 발급



중앙모임 대의원 추천, 지원 받습니다.

본모임 정관과 중앙모임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2014년 2월 ~ 2016년 2월까지 임기제 대의원을 본모임의 취지와 정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회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 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되며, 역할은 정관 제22조(총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이사와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등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등 기타 중요 사항이며, 대의원 추천 및 지원 자격 요건은 본회 회원으로서의 회원가입이 만 3개월 이상이고, 연 5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 선거권추천이 있으며, 연 10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피선거권(지원)이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본모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거나 사무국으로 방문하여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 접수 방법 :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 ◇ 지원, 추천일 : 2014년 1월 15일까지
 -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 팩스 : 02.741-4638
- ◇ 신청서 :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무국

2013년 매폰향기롭게 송년&음악회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5일, 매폰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의 창건 16주년 기념법회가 있던 날 오후 2시부터 시민모임 매폰향기롭게 의 송년회와 더불어 매폰향기로운 음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부 송년회에서는 매폰향기롭게 에서 올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이런저런 활동을 안내해 드렸고, 가결산보고 및 내년도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매폰향기롭게 에서 이웃을 위해 열

심히 봉사한 모범봉사자에게 감사패 시상하였는데, 결산이웃 밑반찬 조리활동을 8년간 해 오신 김경숙님과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10년간 활동간 해 오신 길윤자님에게 시상하였습니다. 수상자에게는 리폼봉사팀에서 손수 만든 자수가방과 천연화장품, 길상사 사진공양집을 선물로 증정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길상사의 창건 16주년을 기념하고 회원들과 함께 하는 매폰향기로운 음악회를 "생명 * 평화 * 나눔"이란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초청가수는 '노래하는 사람 임정덕 밴드'였습니다. 공연이 모두 끝난 후에는 행운권 추

첨을 통해 천연화장품들과 책을 나눠드렸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본모임과 길상사에서 항상 활동하시는 봉사자께서 많이 참석하지 않아 섭섭했습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마음은 잘 알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 모임의 활동모습도 보고, 듣고, 격려하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에는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회원님과 봉사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매폰향기롭게 2014년 달력 우송 안내

11월말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1만 원 이상(우편비)의 기부금을 후원해주신 회원님에 한해 2014년 달력을 지난 12월 12일 우송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기해서 후원해주신 분의 경우 1월에 중순경에 달력을 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달력이 분실되거나 주소이전으로 재반송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회원님께서도 회원정보보호와 우편물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변경시 사무국으로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후원회원님중에 후원은 하시지만 소식지를 받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사무국에서 챙겨서 보내드린다고 하지만, 간혹 달력 우송이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주시고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발송 중에 파손, 불량인 생김 경우에도 전화주시면 조치해드리겠습니다.

매폰향기롭게 회원이 되시면

‘월간 매폰향기롭게’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매폰향기롭게 모임은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매폰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모임으로 월간 ‘매폰향기롭게’을 매월 발간하여 교도소, 병원, 군법당, 복지단체등에 지속적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최소 우편비 10,000원 이상을 후원하시는 회원님에게는 소식지와 연말달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폰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모임의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스님의 글과 지혜의 글을 가정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소식지를 우편발송한 후 본모임으로 되돌아오는 부수가 평균 10여부 가량 됩니다. 대부분 이사를 가거나 장기간 방치된 경우로 사무국 담당자가 연락을 드려서 확인 후 재발송 해드리지만 간혹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득이 우편발송 중지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녹색장터 수익금으로 미혼모 교육시설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녹색나눔장터의 수익금을 차곡차곡 모아 500만원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입양이 아닌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교육 지원을 위해 미혼모 복지시설 '두리흠'에 전달하였습니다. 구세군 두리흠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혼모 복지시설로서 계획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외면 받고 갈 곳 없는



미혼모들을 받아주어 숙소와 생활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결식아웃 밀반찬 조리봉사 함께해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등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27기 밀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이 활동은 봉사자끼리 서로 웃어가며 함께하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고 하십니다. 차가운 날씨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나눠주실 분은 언제라도 전화주세요.

전화말벗 봉사자 모집

전화말벗 자원 활동은 결식아웃 후원(밀반찬 지원) 대상자중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등에게 일주일에 한번이상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인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한 시간에 전화로 봉사에 참여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세요. 그리고 봉사자 정기모임은 1월부터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싯달타실로 변동됩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

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식구 중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맞이하여 기쁨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은 부담되는 경우, 회원은 아니지만 본모임 활동이나 뜻을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계좌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본회 회원이 아니신 분은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후원 전, 후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도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후원계좌 : (새)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아웃후원계좌 : (새)맑고 향기롭게

국민은행 817-01-0255-458
문의 : ☎ 02-741-4696~7

1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2일(목)/오전 10시~12시/ 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아웃 후원 밀반찬 조리 자원활동/목요일(2,9,16,23일)/금요일(3,10,17,24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물어도 좋을 일복 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매주 월요일(6,13,20,37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기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활동/둘째, 셋째 일요일(12,19일)/오전 9시30분~12시/ 청소년 봉사자

• 모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5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둘째 일요일(12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넷째 화요일(28일)/오후 1시/싯달타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8,15,22,29일(수)오후 1시 30분 (삼표,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산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 오후 2시/세계일화실

• 자수가방만들기강좌/매주 목요일 오후 2시/세계일화실



광주모임 (062-236-3129)

1월 정기 활동 안내

- '공양 나눔 센터'에서 동참해 줄 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오전9시30분에서 오후2시까지 진행 되는 활동에 선함을 베풀어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 광주모임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80개의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으며, 점심공양 나눔의 집을 신설하여 저소득층과 고령층대상으로 하루 100명분, 일천 원의 식대로 12시에서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기 독서모임 : 매월 둘째 수요일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1월 정기 활동 안내

- 홀로 어른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매주 수요일/1사-음식조리, 19사-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토요일로급식 및 웃음교실/매주 토요일/9시부터 음식조리, 2시 마무리
- 룬비나동산(장애인동 보호시설) 자원봉사 활동/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3~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목욕,식사케어,빨래정리,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 운영위원회의/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1월 정기 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매월 셋째 주 수요일/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창원 시파복지회관 내 식당/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재현이네와 10가구)-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쌀, 밑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경남 화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구입문의 ☎(055)266-0170
-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오후1시30분/재료비 22,000 (수강료 없음)/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1월 정기 활동 안내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매주 목요일/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 매주 금요일/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인 이동목욕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매월 1,3주 금요일/09:30~12:00
- 매달 첫 번째 토요일-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달 네 번째 금, 토요일-웅두산 공원 무료급식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사)맑고 향기롭게 에서는 대전, 충청지역에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진취적으로 펼칠 역량 있는 대전 본부장과 실무를 충실히 이행하실 분의 지원 및 추천을 받습니다.

1. 자격 :
 - 정관 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홈페이지 정관 참조)
 - 지부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자
2. 신청기간 : 2014년 1월 20일까지
3. 신청방법 : 별도 문의, 상담
4. 선정자 결정 : 접수 후 개별 통보
5. 문의처 :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사무국 ☎ 02-741-4696

다라니기도

- 일시 : 1월 4일 (오후7시~9시)
- 장소 :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시 : 1월 11일 (오후9시~다음날오전4시)
- 장소 : 길상선원
- 법사 : 주지스님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1월 11일
(오후8시30분~다음날오전4시까지)
- 장소 : 극락전
- 준비물 : 물병, 수건, 좌복보호대

1월 주말 선 수련회

- 일정 : 셋째 주말 18일(토)~19일(일)
넷째 주말 25일(토)~26일(일)
- 참가비 : 7만원(입금순 50명 선착순 마감)

동안거 90일 관음기도

고요한 정진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맑혀가는 90일의 시간! 동안거 기간 동안 관음기도도 함께 합니다.

- 입재&회향 : 2013년 11월 17일 ~ 2014년 2월 14일
- 장소 : 극락전

설 합동차례

선망조상님의 음덕을 기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공양을 올리는 설 합동차례가 봉행됩니다.

- 일시 : 2014년 1월 31일 & 오전9시50분
- 장소 : 극락전

성도재일 철야정진

음력 12월8일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깊은 선정에 들어 정각을 이룬 날입니다. 이 성스러운 날 철야정진의 시간을 마련하오니 자신의 참 마음을 깨닫기 위한 정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월 7일
(오후9시부터~다음날 오전 3시50분까지)
- 장소 : 극락전, 길상선원

정초기도

경건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고 일 년을 준비한다는 의미의 정초10일기도가 봉행됩니다.

- 입재&회향 : 2014년2월2일~2월11일
- 장소 : 극락전

입춘(立春)기도 안내

- 일정 : 2014년 2월 4일
- 일시 : 오전9시50분
- 장소 : 극락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2월 1일	오후 7시	극락전
정초기도	2월2일~2월11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2월 8일	오후 9시	길상선원
삼천배 철야정진	2월 8일	오후 8시30분	극락전
동안거해제법회	2월14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춘계관음기도입재	2월15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지장재일	2월17일	오전 9시50분	지장전
관음재일	2월23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법정스님4주기 추모법회	2월25일	오전 9시50분	설법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50분/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50분/저녁 6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오후 3시	소강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침묵의방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새신도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吉祥寺

불교대학 5기 모집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2014년도 제 5기 불교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에 대한 심도 있고 바른 지견을 갖추고 수행의 경륜이 깊은 스님들과 재가 범사들로 이뤄진 강사진이 불교 전반에 대한 명쾌한 이해와 굳건한 신심을 바탕으로 바른 수행의 길로 안내합니다.

- 학제 : 1년 2학기제
- 응시자격 : 기초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불자님
- 장소 : 길상사 설법전
- 일정 : 3월초 / 개강~ 다음해 1월 /졸업
- 제출 서류 : 길상사 입학원서, 사진 2매
- 접수 : 현재 상담 및 접수 중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주간반/야간반)
- 문의 : 길상사 교무실 02)3672-0036

※학사일정은 추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매월1회) 발행 · 통권 227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라08708호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136-022 서울 성북동 323 길상사 내 ☎ 02)741-4696~7